

“도시공원 민간매각 불가피? 장·단점 따져야”

어제 도·의회 정책토론회서 민간특례 추진 우려 목소리 “일몰제 앞뒤 필요” 의견에도 ‘행정 독선’ 비판 강력 제기 “일몰제 대응 계획 필요... 급할수록 돌아가는 지혜를”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일몰 도시공원 대상 민간특례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정 부담 해소 등의 차원에서 추진이 불가피한 점에 대해 공감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행정의 독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도민 공감대 확보가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는 17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실요할 예정인 미집행 공원에 민간사업을 투입해 개발사업(부지의 30% 미만)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부지 70% 이상은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사업 대상공원은 오등봉공원(74만4000㎡)과 중부공원(21만4000㎡) 등 2곳이다.

토론자로 참여한 임상근 제주연구원 박사는 “모두 매입해서 도시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며 “그냥(실효일까지) 놔두면 더 큰 난개발이 될 수 있다”고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7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어 “국비 확보가 필요하지만 (공원 2곳의 실효일인 2021년 8월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민간특례를 검토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는 공공성 확보 방안, 주민참여 방안, 뉴딜사업 연계 방안, 복권기금 활용 기금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민간특례사업은 국가가 사업자에게 강제수용권을 주는 것”이라며 “민간특례 장·단점을 먼저 논의해야 하지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오는 24일 국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며 “국가 지원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이제 논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몰제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이렇듯 주민갈등, 사회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인 강성민 도의원도 성급한 절차 진행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일몰제 대응을 어떻게 할지 전반적으로 계획을 잘 필요가 있다”며 “행정 차원에서 급하니까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쓴소리했다.

한편 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안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를 20년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에 제도가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주지역에는 39곳·679만8000㎡의 장기미집행 공원이 있으며, 오는 2020년 7월 30곳을 시작으로 2021년 8월 7곳, 2022년 4월 2곳이 일몰된다. 일몰 후에는 해당 부지는 이전 용도로 전환되며 개인이 소유한 부지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소진기자 sj@halla.com

노인 주거·요양·생활 지원 하나로... 서귀포시 ‘통합돌봄 사업’ 효과 낼까

오는 10월 중 서비스 시행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오는 10월부터 서귀포시에서 추진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노인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사업은 현재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보건과 복지 서비스가 단편적·분편적이던 한계를 극복을 위한 것으로, 지역여건과 대상에 맞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이 주된 취지다.

서귀포시는 10월중 서비스에 들어갈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앞두고 사업 실행계획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20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오는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모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지자체로 선정돼 2021년 8월까지 2년간 총 42억6000만원(국비와 도비 각 50%)이 투입된다.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노인들이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복지·보건·의료·주거·돌봄·독립생활 지원을 통합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특히 현재 적지 않은 고령층이 집이 아닌 병원이나 시설에서 지내는 의료·복지체계 중심에서, 이들 노인들이 평소 살던 집으로 복귀를 희망할 경우 퇴원 계획에서부터 집안의 문턱 제거·안전바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목욕, 의료기관 방문이나 약 처방과 관련한 케어 플랜 등 노인별 건강상태나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계획, 실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이 사업을 위해 올 하반기 인사에서 주민복지과에 전담조직인 통합돌봄지원팀을 신설했다. 또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 인력을 보강하고, 지역자원의 연계·발굴을 위한 기관단체 방문과 간담회, 통합돌봄 실무자 교육 등 촘촘한 서귀포형 통합돌봄 모델을 계획하는 중이다. 시가 실행계획을 수립중인 시범모델은 ▷재가로의 복귀·정착지원 모델 ▷사회적기업 예방 모델 ▷재가 돌봄 사각지대 노인 돌봄 모델 등 3가지다.

오회경 통합돌봄지원팀장은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독거가구가 여수 없이 요양병원 등에서 지내던 노인들이 자신이 살던 집으로 돌아가길 원할 경우 퇴원을 돕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돕는 일에서부터 부양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요양원·병원입소를 지연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민관이 연계해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6년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데, 서귀포시는 이보다 빠른 2022년쯤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서귀포시 노인 인구 비중은 17.8%다. 문이숙기자

효과 톡톡 ‘페트병 수거보상기’ 확대

재활용품 수거 강화 협약 개발공사, 시내 추가 설치

제주삼다수를 생산, 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재활용품 자동차 수거보상기 사업’을 제주시내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개발공사는 16일 제주시농협 본점에서 제주시 농협(조합장 곽봉주), 사단법인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대표 김호철)와 재활용품 수거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사는 재활용품 자동차 수거보상기 구입 및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제주 농협은 장소 제공 및 기술 지원을, 제주사회적경

제네트워크는 보상기를 직접 운영,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제주시 하나로마트(제주점, 노형점 정문)와 제주국제공항 3층 출발장, 제주대학교 캠퍼스(학생회관)에 페트병 자동차보상기(각 2대)를 설치하게 된다. 세 곳 모두 여행객, 도민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이자 폐트병 같은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많이 배출돼 보상기 운영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곳이다.

제주개발공사는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서귀포시, 사단법인 울레와 손잡고 사려니숲길 등 주요 관광지에서 ‘페트병 자동차 수거보상기’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11개월 동안 6000여명이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동참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상훈기자

2020년 균형발전사업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지역균형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마을여행사 사업(구좌읍)을 포함해 ▷(환경면) 저지 수놓음 행복방 사업 ▷(우도면)문화 공간 조성 사업 ▷(노형동)월산 마을 행복센터 사업 ▷(대정읍)어르신 문화(老) 소확행 사업 ▷(표선면)진동산 프로젝트 사업 ▷(영천동)돛드르 HAPPY 토크 사업 등 7개이다. 조성윤기자

마을역사 함께한 노거수 지킨다

제주시, 전수조사·관리 등

제주시는 마을 보호수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쉼터, 마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소중한 산림자원인 노거수에 대해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후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한 노거수에 대해 즉시 예산을 투입,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거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에 근거,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 80년 이상 수목 중에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수목을 주로 지정되며, 현재 제주시에 지정 관리하고 있는 노거수는 팽나무 43본, 해송 5본, 상수리나무 1본으로 2014년부터 지정 관리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 후 노거수 관리대상 작성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노거수가 가진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등 장차 보호수급으로 보전 및 관리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노거수 역사적인 유래 등이 있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지목을 적극 발굴해 보호수 및 노거수로 지정·관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 보호수는 팽나무 74본, 해송 29본 기타수종 13본 등 총 116본이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이번 노거수 전수 조사시 보호수도 함께 조사해 금년 3월 1차 정비 사업에 이어 9월 중에 2차 정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대리기자 bigroad@halla.com

2018년 선정 인문도시 지원 사업

제주, 올레길 인문학 코스를 걷다!

추가 수강생 모집 안내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도시사업단은 2018년도부터 한국연구재단 ‘인문도시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강좌 및 인문학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제주문화와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준 5개 분야의 장신문화유산(제주신화, 풍물문화, 차장문화, 유배 문화, 제주 4·3)을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해당 강좌의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강좌명: **제주, 올레길 인문학 코스를 걷다!**
 — 강좌기간: (1차) 2019. 09. 19(목) ~ 11. 28(목) (2차) 2020. 03. 05(목) ~ 05. 14(목)
 ※ 2019.12. ~ 2020.02. 및 공휴일 제외, 매주 목요일 19:00 ~ 20:30
 — 강좌장소: 제주 벤치마루 10층 세미나(제주시 중앙로 217)
 — 신청기간: 2019. 09. 19(목) ~
 — 수 강 료: 무료(간식을 내 주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매 강좌 당일 현장접수
 — 수 요 증: 70% 이상 강좌 참석자에 한하여 수료증 발급
 — 세부일정

번호	일자	강사명	주제 (강좌내용)
2019년도 강좌			
1	'19. 09. 19	허 남 훈	문선신화 오늘날 (제주신화 속 구비문화)
2	'19. 09. 26	함 승 훈	신화를 둘러싼 제주 민속문화 이해하기
3	'19. 10. 10	강 소 전	제주신화와 가래
4	'19. 10. 17	강 문 흥	신화, 일상을 만나다
5	'19. 10. 24	오 영 주	풍물 몸짓문화의 유입과 토착화 과정
6	'19. 10. 31	김 일 우	제주, 풍고를 만나다
7	'19. 11. 07	강 만 익	조용함의 인문학
8	'19. 11. 14	백 영 훈	풍물어가 제주어에 미친 영향
9	'19. 11. 21	신 선 영	김홍도, 제주와 삶을 엮었다
10	'19. 11. 28	김사미	김원식, 율희(楡喜)로 소통하다
2020년도 강좌			
11	'20. 03. 05	김사미	이항상, 제주를 그리다
12	'20. 03. 12	홍 기 표	인물로 보는 제주유배의 역사
13	'20. 03. 19	고 미	유네스코, 제주해녀문화를 품다
14	'20. 03. 26	신 우 흥	제주 해녀의 언어와 제주 방언
15	'20. 04. 02	김 순 자	제주어로 보는 해녀문화
16	'20. 04. 09	좌 혜 경	제주 해녀의 생애와 문화
17	'20. 04. 16	이 영 군	일제의 상흔, 평화를 말한다
18	'20. 04. 23	양 정 심	4·3 율희로 이해하기
19	'20. 05. 07	김 종 실	4·3 유적지 복원과 활용
20	'20. 05. 14	김 종 훈	문학으로 보는 4·3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 일시 및 강좌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도시사업단 담당자(이현정, 이기정) 064-754-2333

주최: 주한 J·J· 제주특별자치도 인문도시사업단
 후원: 교육부 NRF 한국연구재단 인문도시사업단

※ 이 사업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었습니다. (과제번호-2018S1A6A6062611)

제주시 창업카페 창치마루 3주년 특별 강좌

우리들의 소중한 창직 창업 Festival

♡ 창직과 창업을 통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경제인재리과에서는 제주시 창업카페 ‘창치마루’를 2016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주시 창업카페 ‘창치마루’는 예비창업자의 성공적 창업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비롯하여 창직 확산을 위한 다양한 창직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주시 창업카페 ‘창치마루’ 개소 3주년을 맞이하여 어려운 경제 속에서 자신 만의 일자리를 만드는 “창직”과 “창업”을 준비하시는 드림자리 입주자(팀)을 제주시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창치마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 창치마루 드림자리 입주업체 상시 행사 (대상: 청년, 장학인, 중장년 등 누구나 참여가능)
 ○ [클라우드] ‘청년커뮤니케이션 이터널 소개 및 전시’ 9/23(월)~27(금) 9:00~18:00

■ 창치마루 드림자리 입주업체 창업·창직 시연회

일 정	창업시연팀	시연 내용	모집인원 (신청순)
9월 23(월) 15:30~17:30	한소리신화 역사연구소	이야기가 있는 제주신화 캐릭터 그리기 ‘강림차와 열대열’	20명
9월 25(일) 14:30~16:30	심버힐링 건강센터	원예치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원예치료 체험’	13명
9월 25(일) 15:30~17:30	미트광방	제주원두 식재료체험 ‘제주대지교기’에 제주의 토속 식재료를 담다	20명
9월 27(일) 11:30~14:30	바이바이 플라스틱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 공유 ‘일회용품 없는 생활 만들기’	30명

○ 시연회 장소: 제주시 창업카페 창치마루 통통거리(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 참여신청: 창치마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https://blog.naver.com/jcmaru6) (모바일시이트에 “창치마루” 검색)

□ 자세한 사항은 창치마루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jcmaru6 소식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070-4268-264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액무료 매월최대 400,000 지급

내선전기 실무자 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과정

대 상: 실업자 / 구직자 / 매출 1억5천 미만 사업자
 교육기간: 11월 개강예정 - 7개월 과정 - 개강일 변경 변경될수 있음
 교육시간: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기능사, 배선배선공사, 약전, 동력설비, 소방설비 등

※ 필요서류: 내일배움카드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6주이상 기간 소요됩니다.)

국비지원 ※회계 입문단계부터 강의합니다※

세무회계 자격증(FAT1급/ 전산회계1급) 취득과정

대 상: 직장인/재직자/실업자/구직자/매출1억5천미만사업자
 교육기간: 10/7 ~ 12/30
 교육시간: 월,화,수,목(주4회) 19:00~21:50
 교육내용: 세무회계 자격증 취득과정

주제원직업전문학교 T. 749-3434 jejuwon.com

※ 본교장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 렌터카

2018. 12. 17. 제23회 소비자의날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 평가 대상 수상

4년동안 타던 차를 반납하면

전세보증금처럼 새차 탈때 낸 금액을 100% 돌려 받는 새로운 렌터카 서비스! 당신의 자산과 가치를 지켜주는 카테크의 시작 전세렌터카로 갈아타세요!

차고지증명제가 필요없습니다

똑같은 자동차 타는 방식으로 자산을 지키세요!

개인, 법인 사업자 경비 처리됨

매월 관리비와 기름값으로 품용선 차량을 탈 수 있다.
 주행거리 제한 없는 상품
 우리가족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 고객의 신용상태 상관없이 이용가능
 무료정비서비스는 S정비업체 사고처리는 S차재
 4년마다 원하는 신모텔 차량을 순환으로 탈 수 있다.
 4년 뒤 보증금 100% 환불

이전 자동차는 소유가 아니라 편리하고 경제적인 사용의 개념으로 보셔야 할때.

내가 원하는 국내 수입차 전차종 가능...

① 세무 부담
 ② 정비 부담
 ③ 보험 부담
 ④ 주행거리 제한

⑤ 보험사
 ⑥ 정비 보험
 ⑦ S정비업체
 ⑧ 자금보증

국제로템 판매처에서 렌터카 WONCAR CTS매니저 박종욱 010-9104-4742